

## 인도자용

### 기쁨의 언덕 5 월호 (2017 년) 사무엘 하 소그룹 교재

매주 “여는 질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 준비

- 소그룹을 통해서 소그룹 참석자들이 영적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인도자인 나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한다.
- 초를 미리 준비한다.
- 소그룹 시작 시간 전에 소그룹 장소에 미리 도착하여서 의자 등의 여건이 잘 되어있는지 점검하고, 모든 참석자들이 편히 소그룹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기의 지도를 준비한다.

#### 환대

- 소그룹 참석자들이 도착할 때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이한다.

#### 시작

- 정시에 시작한다.
- 초에 불을 붙이며, 그 촛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냄을 설명한다.
- 시작 기도를 한다.
- 소그룹의 취지를 간단하게 말해준다.
  - 소그룹은 토론그룹이 아니다.
  - 모든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한다 - 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한다.
  - 나와 다른 생각이나 견해가 있을 때 마음을 열고 그 말을 듣는다. 소그룹은 “옳은 생각”을 찾고 “틀린 생각”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고, 서로 나눔을 통해 함께 성장해 나가는 시간이다.
- 찬송을 부른다.
- 오늘의 제목을 말하고 본문을 함께 읽는다.

#### 소그룹 교재 #1

**제목: 하나님과 함께 내리는 결정**

**본문: 사무엘하 2:1-7**

**찬송가: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새찬 214), 이 세상 험하고 (새찬 263), 변장은 주님의 사랑과 (새찬 270)**

### 여는 질문

다음의 여는 질문을 하나씩 물어본다. 모든 참석자들이 간단하게라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인생에서 그동안 내려왔던 많은 결정들 중에서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 (진학, 결혼, 직장, 이민 등의 답이 나올 수 있다.) 그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이었습니까?(왜 중요하며 그 결정이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물어본다.)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여쭙어 보고 내린 결정과 그렇지 않고 혼자서 단독적으로 내린 결정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하며, 본문공부 후에 다시 이 질문에 관해 생각해 본다.)

### 본문 이해

사울의 죽음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큰 정치적 공백이 생겼다. 왕은 죽고, 미래는 불확실하고, 여러 정치적 세력이 권력 장악을 위한 신경전에 들어선다. 한마디로 위기의 순간이 온 것이다. (현재 한국의 정치적 공백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 역사에서 조선 말기, 일제 해방 후, 한국 전쟁 후 등 큰 역사적 전환기에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정치적 공백 혹은 갈등을 함께 생각해 본다.)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중요한 시점에 다윗은 본인의 생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여쭙어 본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1 절)라고 여쭙어 보니, 하나님이 그러라 하시자 다윗은 다시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야할지 여쭙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하는 답을 듣는다. 여기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과 상의를 하고, 그 뜻에 따르는 다윗의 모습본다. 순종의 모습이다. (정치적 지도자들 뿐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종교지도자들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본다. 정치적 공백기에 교회 혹은 종교지도자들은 어떻게 혼동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는가?)사울의 군 사령관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과는 참 대조적인 모습이다. 아브넬은 전혀 하나님 개입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겼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군주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장점은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이 주신 힘을 의지했다는 점이다. (누구도 철저하게

완벽한 지도자, 완벽한 목사, 완벽한 부모,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우리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의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육을 더 받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좋은 권력의 위치에 오르는 것이 인생을 편하게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장 자유롭고 가장 쉽게 삶을 사는 길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다. 돈을 아무리 많이 들여서 본인이 좋아하는 길이라고 억지부리고 가봤자, 시간만 더 들고, 가는 길은 더 멀어지고, 험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여쭙어 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자유로운 길이라는 점이 모순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무엇이 정녕 참된 자유인지 그 의미를 소그룹에서 함께 묵상해본다.)

### 말씀 속으로

1. 헤브론은 다윗이 이스라엘에 통일 왕국을 세우기 전에 남쪽 지역에 수도로 세운 지역이다. 이곳에서 다윗은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전에 7년동안 이곳에서 집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곳을 결정짓고, 온 가족과 추종자들과 함께 옮기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에 먼저 여쭙어 보고 옮긴 것이다. 모든 점을 하나님과 상의하는 다윗의 신실함을 보여주는 본문이다. 헤브론의 이름을 딴 교회들을 많이 보는데, 이는 단순히 헤브론 지역을 기념해서가 아니고, 다윗의 신앙을 기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기의 지도를 보고 헤브론과 예루살렘을 찾아본다. 유대지역이 어디인지도 찾아본다.

2. 다윗은 일단 유다 사람들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남쪽 유다 족속의 왕이 된다.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는 것은 이로부터 7년 후가 된다. 북쪽 지역에서는 사울의 아들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스보셋이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된다.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과 다른 사울 추종자들이 이스보셋을 지지하여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스보셋이나 아브넬은 다윗처럼 하나님과 상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결국 이스보셋의 왕위는 오래 가지 못한다. 비슷한 시기에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이스보셋은 아주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첫 시작부터 하나님과 함께 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것이다.

3. 예수도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과 상의하시는 모습을 보였다.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에서 40 일을 보내면서 금식 기도하셨고 (마태 4:1-11), 사역 중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으나, 여러번 혼자서 조용한 곳으로 가 기도하셨다 (누가 4:16 등).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여쭙어 보았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22:42). (이 성경구절들을 함께 읽는다. 특히 예수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 많이 대화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의미있는 본이 된다. 죄없으신 예수도 하나님과 상의했는데, 너무나 부족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과의 시간이 필요하다.)

### 삶속으로

1.우리는 일생동안 결혼, 취업, 투자, 사업, 거주지 등 많은 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런 결정들을 내리기 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상의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인생에서 내가 내린 결정 중에 하나님께 여쭙어 본 후에 내린 결정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본다.

여는 질문에서 나왔던 삶의 이야기를 좀 더 심도깊게 나눈다. 특히 하나님과 상의한 후에 내린 결정에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가를 생각해본다.

2.인생에는 큰 결정들이 있지만, 생활의 실질적인 결정들도 중요하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사는가 등등의 사항은 흔히 우리가 개인적 취향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 그러나, 작은 결정하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합당하지 아닌지를 여쭙어 보고 사는 습관을 드리도록 한다. 나의 밥한끼에서도 신앙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 나는 어떤 부분에서 더 하나님께 여쭙어 보고 살아야 하는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은 내가 언젠가 결정을 내리고 사거나, 다른이들로부터 받은 것이다. 나의 소유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데 잘 쓰여지고 있는지, 아니면 혹은 장애가 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본다.

3.삶과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경제의 문제이다. 얼마만큼의 돈을 나를 위해 쓰고 얼마만큼의 돈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드리나,의 사항도 결국은 신앙의 문제이다.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자선사업에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와줄 때에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어 보고 하는 습관을 기르자. 결국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다른 이들에게 갚은 것이되어야 한다.

5 월이면 거의 모두가 세금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세금보고를 하면서 소득의 얼마만큼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헌금/기부하였는지 잘 나타났을 것이다. 나의 세금 보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한다.

### 암송구절 삼하 2:6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고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삼하 2:6)

## 자녀와의 나눔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커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지를 자녀에게 물어보고, 미래의 소망을 자녀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여쭙어 보면 좋을지 함께 대화해 본다.

## 소그룹 교재 #2

제목: 은총을 베푸는 삶

본문: 사무엘하 9:1-13

찬송가: 기뻐하며 경배하세(새찬 64), 나의 생명 드리니 (새찬 213),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새찬 251)

## 여는 질문

인간은 모두 사랑을 받기원한다.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을 다른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은총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베풀고 있는가? **최근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경험이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 본문 이해

왕권에 안정되고 나자, 다윗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한다. 그의 후손들에게 잘해주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고자한다. 신실한 왕인 다윗은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3 절). 다윗은 단지 요나단과 우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 둘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에 근원을 둔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집안의 단하나의 생존자인 므비보셋을 찾는다. 므비보셋은 사울집안이 멸망할때 종이 데리고 도망치다 어린 그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평생 다리를 저는 상처를 입은 가슴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다. 므비보셋을 찾은 다윗은 그를 측은지심으로 대하고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을 수 있는 큰 혜택을 준다. **(므비보셋은 여러가지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간다. 첫째, 어린 나이에 몸을 다치고 불구가 되었다는 것은 신체적, 심리적으로 큰 상처이다. 특히 사울의 정치적인 몰락 속에 도망을 가며 입은 상처이기에 부상 후에 제대로 치료를 했으면 평생 불구는 막을 수도 모를텐데하는 아쉬움도 있을 것이다. 둘째,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다른 식구들을 한꺼번에 잃은 트라우마가 있다. 그것도 자연적으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정치투쟁 속에서 살해당한 것이다. 단 하나의 가족이 살해 당해도 그 심리적 혼란과 상처가 극심할텐데, 르비보셋은 가족을 모두 잃고 유일한 생존자가 된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해본다. 셋째, 왕족에서 역적이 될뻔하다가 그래도 그나마 부상이 있는관계로 평민의 신분으로 살게되는 드라마틱한 인생전환의 트라우마가 있다. 이 엄청난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슬픔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런 르비보셋을 다윗이 찾은 것이다. 그리고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해준다. 적이나 동지이냐의 관계를 떠나서 일단 어렵고 상처받은 이들을 보듬어줄때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신다.)

가족, 친구, 동료, 이웃 등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들에게 잘 해주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은총을 나누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섭섭할 일이 없다. 그 사람의 존재는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받는 것을 좋아한다. 사랑도 받고 싶어하고, 선물을 받을때 좋아한다. 하지만, 타인 존재의 의미는 나에게 심리적 혹은 물질적 그 무엇인가 주기위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 존재의 의미가 그 무엇인가를 타인에게, 특히 어려운 자들에게 주기 위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측은지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한다. (다윗의 측은지심을 묵상해보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주는지 생각을 나누게 한다.)

### 말씀속으로

1.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아끼고 챙겨주는 사이로 그 우정은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는 것이었다 (사무엘 상).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삼상 18:2). 그 우정의 언약을 기억하며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을 돌보았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을 통해 알수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2. 예수님의 사역에서 식탁 공동체는 참 중요했다. 예수는 죄인과 함께 식탁을 나누고 교재했기에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게 된다 (마태 9:10-13). 오병이어의 기적도 식탁 공동체의 나눔의 역사의 일환이다 (요한 6 장). 나는 예수의 식탁공동체를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 (이 성경구절들을 함께 읽어 보며 오늘날 우리의 식탁공동체에 예수가 어떻게 현존하는지 생각해본다.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본다.
3. 성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림과 동시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무 조건없이 다 같은 사랑을 받음을 상징하는 예식이다.

므비보셋이 왕의 상에서 함께 식사하듯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에 초대 받게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눌 수 있음을 말해준다. 우리 교회의 성만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가? (감리교에서 열린 성만찬을 하여, 나이나 교적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이 예수의 식탁에 함께 할 수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열린 성만찬이 어떻게 조건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해 주고 있는지 생각을 나눈다.)

### 삶속으로

1. 나와 나의 가족의 식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나의 식탁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상이 될 수 있을까?
2. 교회에서 Soup Kitchen 이나 PADS 등 굶주리고 집없는 자들을 위한 사역이 있을 때 참여해본다. (Food Pantry 등 음식을 나누는 사역을 해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본다.)
3.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

**암송구절: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삼하 9:3)**

### 자녀와의 나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자녀들과 이야기해본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야기를 해준다. 자녀들과 함께 마트에 가서 박스나 캔에 담긴 음식을 사고 그 음식을 동네의 Food Pantry 에 기부한다.

### 소그룹 교재 #3

**제목: 화해의 하나님**

**본문: 사무엘하 14:25-33**

**찬송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새찬 212), 언약의 주 하나님 (새찬 248), 천부여 의지 없어서 (새찬 280)**

### 여는 질문

(흔히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기도의 제목도 관계에 연결될 때가 많이 있다.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직장 동료/상사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다른 교우들과의 관계 등 우리는 여러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고 좋은 관계는 우리의 행복의 핵심이다.) 좋지않은

관계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어떤 사람을 어려워 할 수도 있고, 다른이가 나를 어려워 할 수도 있다. 관계가 안 좋을 때 나는 어떻게 화해를 시도하는가?

### 본문 이해

3 년동안 귀향생활을 하고난 후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을 꾀했던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다윗과 압살롬은 아버지와 아들로써 화해의 입맞춤으로나눈다. (소그룹 모임 전에 압살롬에 관해 성경사전 등을 보며 자세히 공부하여 압살롬이 누구인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왜 아버지 다윗과의 사이가 극도로 악화되었는지 잘 알아둔다.) 성경에는 여러 화해의 이야기들이 있다. 야곱과 에서, 요셉과 그 형제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들은 모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삶을 살기를 원하심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분열된 것을 하나로 회복해 주시고, 갈등이 있는 곳에 화해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며, 분쟁을 평화로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화해자로 세상에 오심을 알고 있다. (바울은 예수를 따르는 자는 화해사역자라고도 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화해사역자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본다.) 누가복음 15 장의 탕자의 비유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보여주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화해의 하나님임을 말해 주기도 한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는 탕자에게 어떤 요구도 하지 않는다 - 돈을 돌려달라던가, 앞으로 집안 일을 해야한다던가 등등. 무조건적으로 탕자를 안아준다. 조건없는 화해이고, 조건없는 사랑이다.)

오늘날 화해의 정신은 전세계적으로 절실히 필요하다. 한반도의 남과 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미국 내에서 여러인종의 갈등 등 여러 갈라져 있는 삶의 모습은 다윗과 압살롬의 갈등과 비교할 수 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가족간에, 친구들과, 또 직장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화해의 삶이 어렵기는 하지만 가능함을 알려준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화해의 삶으로 불러주신다.

### 말씀속으로

1. 반역을 일으킨 아들을 용서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리고 반역을 일으킨 후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와 용서를 구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의 아들의 정과 사랑이 정치적 권력의 욕망과 힘보다 훨씬 더 강함을 보여주며 다윗과 압살롬은 화해의 입맞춤을 한다. 다윗과 압살롬이 반란 중에 느꼈을 고통과 화해를 하며 느꼈을 기쁨을 생각해 본다.

2. 야곱과 에서의 화해 이야기 (창세기 32-33), 그리고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의 이야기 (창세기 45 장)을 읽고 화해와 용서의 의미를 묵상해 본다.

3.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의 역사를 보여준다. 부활 후 뿔뿔이 흩어지고, 슬픔에 잠겨있고, 혹은 공포에 떨며 숨어있던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는 평화를 선포했다. 요한 복음 20:19-22 절을 읽어보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함의 의미를 묵상해 본다.

### 삶속으로

1.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베드로가 죄지은 자들을 도대체 몇번이나 용서해야하냐고 물었을때, 예수님은 일곱번 뿐이 아니라 일흔번씩 일곱번이라도 죄지은 자를 용서하라고 하셨다 (마태 18:22). 한없이 용서하라는 말씀이시다. 나는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군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다음 기회로 미루지 말고, 오늘이라도 용서할 수 있도록 결단의 기도 시간을 소그룹 안에서 인도해 볼 수도 있다.**

2.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인간은 살면서 의도를 안했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내게 상처받은 사람들을 살펴봐 주는 것도 신앙인으로써 중요한 일이다. 내 주변에 누가 나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나는 어떻게 그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을 생각해보고 그들에게 전화 혹은 편지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대화해 본다. "I am sorry"는 참 하기 힘든 말이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말을 했을 때, 말한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해방이 될 수 있다.**

3. 나는 어떻게 화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 암송구절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삼하 14:33)

### 자녀와의 나눔

나에게 잘못을 했거나,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친구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자녀들에게 물어본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는 것이 좋은지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본다.

### 소그룹 교재 #4

제목: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

본문: 사무엘하 18:19-33

**찬송가: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새찬 249),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새찬 288), 하나님 사랑은 (새찬 299)**

### 여는 질문

인생이 장미빛이기만 하다면 좋으련만, 인간의 삶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있다. 우리는 슬픔의 깊은 계곡과 기쁨의 높은 정상 사이에서 수많은 경험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나는 슬픔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어떤 위로의 말을 듣는가? 또한 나는 슬픔을 겪는 다른 이들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가? (지난 주간에 언제 가장 기뻐는지, 언제 가장 슬펐는지 나누어본다.)

### 본문 이해

아들 압살롬을 잃은 다윗의 슬픔은 극도에 다한다. 아무리 반역자라하여도 자식의 죽음은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는 슬픔이다. 다윗이 애통한 마음을 표현하기를, “내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33 절)이라고 한다. 어느 부모나 같은 심정이 아닐까한다. 속을 썩인 자식은 정이 더 간다고도 한다.

나이와는 상관없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과 상실감은 그 무엇보다도 크다. 다윗은 왕과 아버지라는 두가지 역할이 있었기에 그 슬픔이 더 컸을 것이다. 왕으로써는 나라를 바로 잡아야하고 반역자를 처벌하여야했고, 아버지로써는 그 다른 무엇을 내주고라고 아들의 사랑을 다시 찾고 싶었을 것이다. 다윗은 왕으로써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권력이 있었다. 좋은 심복들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성까지 세운바 있다. 그러나 아버지로써,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릴 수는 없다. 다윗은 어쩌면 아버지로써의 사랑을 너무 늦게 배운것인지도 모른다. 죽은 다음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리고 어떻게 더 사랑해 줄 수 있었는지를 알게된 것 같다. 그의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회개의 표현이고, 상처의 아픔으로 남는다.

### 말씀속으로

1. 다윗은 슬픔의 경험이 많은 왕이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을 잃고 왕이 된다. 왕이 된후에 신실했던 초심을 간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백성이 보기에 참으로 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죄를 저지른다. 그토록 원했던 밋세바와 결혼까지 하나 밋세바 사이에서 난 첫째 아이는 죽고만다. 그리고 특별히 사랑했던 장성한 아들 압살롬까지 잃어버린 것이다. 그 슬픔을 다윗은 큰 통곡으로 표현한다. 슬픔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이지만, 누구도 슬픔을 자청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슬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현존을 다시 경험하기도 한다. "차리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삼하 18:33)라는 다윗의 통곡은 반역까지 한 죄인 아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려준다. (사랑하는 이를 잃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경험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은 누구 피할 수가 없다. 사랑하는 이들이 죽었을 때 간혹 하나님이 왜 내게서 이들을 앗아가시나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연사이든, 사고사이든, 아니면 병사이든,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앗아가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슬퍼하신다. 죽음을 맞이하기 전의 준비도 신앙 여정의 일환이다. 당신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고 소그룹에서 물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2. 복음서에도 예수가 슬퍼서 우는 이야기들이 나온다.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을때 (요한 11:33-35) 그리고 예루살렘을 내려다 보며 그 미래를 걱정하며 우셨다(누가 19:41-44). 예수님의 눈물을 어떤 의미였을가를 묵상해 본다.

3. 예수가 돌아가신 후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은 슬픔에 젖어 울었다 (요한 20:11-18).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가 나타나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우리의 슬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가 어떤 위로의 말을 해주시는지 묵상해 본다.

### 삶속으로

1. 눈물은 참 인간적이다. 우리는 너무 뒤늦게 깨달은 사랑에 대해 통탄을 해본적도 있고, 후회에 젖어 기운을 잃어본 적도 있고, 상실의 아픔이 너무 깊어 식음을 전폐한 적도 있을지 모른다. 배우자의 사망 후에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되는 경우가 많다고도 한다. 내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다가와 오시는가?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어려운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눈물을 대변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눈물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2. 다윗이 알게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작은 눈물 하나도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 세상에 전달하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의 역할이기도 하다. 나는 위로의 말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전하는가?

3.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주고 있는가? (최근에 울고 있는 자들을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생각과 경험을 나누어 본다. 연합감리교회소식 (United Methodist News Services)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주는 목회를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그 웹사이트를 살펴보고 감명깊은 이야기를 한 둘 소개해준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umc.org/news-and-media/united-methodist-news>)

**암송구절**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삼하 18:33)

**자녀와의 나눔**

자녀들에게 울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이 우리가 슬프고 울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함께 하여주시는지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또한 슬퍼하고 있는 친구나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본다.